

나주 명하햇골 마을서 귀농·귀촌 체험하세요

3~6개월 농촌 살이
6가구 12명 24일까지 모집
1인당 월 30만원 연수비 지급
쪽 염색, 일자리·주거지 탐색

나주시가 문명 명하햇골 마을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 살기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인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 중인 도시민이 농촌마을에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6가구 12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도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24일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농촌살이 체험마을인 나주시 '문명 명하햇골 마을' 주택에서 쪽 염색 체험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올해로 3년째 사업을 추진 중인 문명명하햇골 마을 주민들은 귀촌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이 마을은 5대째 천연염색 주재료인 '쪽'을 재배하는 사회적기업이자 마을 공동체인 (주)명하햇골을 중심으로 32가구, 5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쪽 베기', '쪽 염색 체험, 교육·제품 판매', '치유음식·치유농업·치유정원 가꾸기' 등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명하햇골 마을은 지난해 숙박동 주방시설 등을 개보수해 올해 참가자들에게 더 좋은 귀촌 체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참가자들은 체험하는 동안 일자리 탐색, 주거지 탐색·결정, 주민 간 융화프로그램 참여 등 농촌에서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숙박은 무료로 제공되며 1인당 매달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원한다.

최경자 (주)명하햇골 대표는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타지인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거부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농번기에 참가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마을에 활력과 화합이 넘쳤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미리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마을 주민들과 어우러지면서 귀농·귀촌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알찬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단계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지원 사업 소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리플릿 제작·배포



장성군 관계자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담은 리플릿을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담은 리플릿(leaflet)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안내 책자에는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군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장성군의 인구정책은 총 11개 분야 127개 사업이다. '결혼·임신·출산 지원 20개 사업',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22개 사업', '청년·중장년 지원 23개 사업', '노후 지원 16개 사업', '귀농귀촌, 다문화 지원 17개 사업', '기타 지원 29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장성군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가 대상이며 3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가정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1세 월 35만~70만 원으로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다.

8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12세까지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성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0만~3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연 7만~10만원의 청소년 수당도 지원한다.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장성으로 전입하면 1인당 10만원의 전입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인 대상 지원도 다양하다. 시설하우스 등 영농 기반시설 설치를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용자도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 인구정책이 수록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길잡이' 안내 책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무대 군부대 등에 비치해 배포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해외 선진농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114명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도쿄국제식품박람회 등 방문

함평군이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3대 식품·음료 전시회에 속하는 일본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를 방문,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우수사례를 탐방했다.

함평군은 2023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만에 걸쳐 일본 도쿄, 오사카 일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상의 함평군수와 공무원, 농업단체 회원 등 2개 팀 114명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고 군정과 농업발전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매년 추진됐던 함평군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이후 올해부터 재개됐다.

이상의 군수를 비롯한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단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실 등 2개 팀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했으며, 공동 일정으로는 도쿄국제식품박람회를 방문했다.

도쿄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세계 3대) 식품 및 음료전시회로 197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48회를 맞은 전시회는 출전자와 방문객의 비즈니스 장소로 높은 평가를 받는 곳이다. 음식과 관계되는 최신정보와 소비자의 성향, 트렌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식품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가공방법 및



일본 나라현 JA 마호로바 키친을 찾은 이상익(오른쪽 두번째) 함평군수가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보, 기술 등을 한 자리에서 살펴봤으며 각자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에 적용 가능한 가공품의 종류와 가공방식은 물론, 상품가치가 없는 생산품의 가공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팀은 JA 마호로바 키친(나라현), 아즈카 유메 직매소, 농업용 농기계 전시장, 대형로컬푸드 판매장 등을 방문해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직거래 매장 활성화방안, 지역특산물의 가공방안, 체험형 관광과 지역특산물 연계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농업정책실 팀은 식품박람회, 로컬푸드직매장 하코네 토오게(카나가와현), 에노모터 원예점, 아끼가와 파머스 센터(도쿄도), JA아즈키 농산물 직매장(카나가와현), 치바 미래 농산물 직매장(치바현) 등도 방문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직접 살펴보고, 최신 정보와 기술 등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군민이 잘 사는 함평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교육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최근 열린 3·1절 기념 전국투어 도로사이클대회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군 동계 전지훈련 메카 '우뚝'

올들어 3200여명 찾아

지역경제 효과 25억원

강진군이 겨울철 전지훈련 메카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8개 종목 32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월 초부터 중등부 축구 16팀, 배드민턴 초·중·고등부 33팀, 탁구 80팀, 배구 8팀, 야구 8팀, 볼링 15팀, 테니스 10팀, 사이클 50팀 등 8개 종목 총 27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았다. 연인원으로는 따지면 약 3만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강진에는 사이클, 축구, 탁구 등 9개 종목에 연인원 3만 3000여 명의 전지훈련

팀이 방문했다. 경제효과는 25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전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지훈련 팀 선수 1인당 하루 8만5000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도 열렸다. '제70회 3·1절 기념 전국투어 도로사이클대회' 및 '2023년 마스터즈 사이클 강진투어'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강진군 일원에서 펼쳐졌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가 가장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올해 하계 훈련은 물론, 연중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나주시, 주민참여예산

5월 말까지 제안사업 공모

타당성 검토 내년예산 반영

나주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주민 생활 편의 및 복리 증진,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을 시민이나 관내 영업을 둔 사업체 임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 완료 불가능한 사업,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 다른 기관 시행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법령, 조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

사업 제안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모 기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 중심의 심사를 통해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담양 소재원 산수유꽃의 봄 소식

15일 담양군 소재원 제월당과 광풍각을 덮은 산수유꽃이 화사한 봄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소재원은 입구부터 펼쳐진 대나무 숲과 물, 나무, 꽃 등 자연경관과 제월당, 광풍각과 같은 정자가 함께 어우러져 다들지 않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선시대의 특유의 정원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함평군, 노인성질환 의료비 소득 요건 없애... 지원 확대

함평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함평군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득 요건을 없애고 만 60세 이상 함평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단,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함평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또 기존 수술 전 신청 절차를 없애고, 수술 후에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건소 또는 월야보건지소로 진단서 또는 진료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무릎인공관절은 한 쪽 무릎당 120만원씩 최대 240만원, 백내장·녹내장과 같은 안질환 수술은 눈 한 쪽당 30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